

# 강원도 노인의 수해경험과 재해인식에 관한 연구 -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비교 -

## Disaster Experiences and Perception of Older People in Gangwon Province: A Comparison of Elderly Men and Women

정순돌\* · 기지혜\*\*

Chung, Soondool · Ki, Jeehye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elderly people's experiences and perception of flood disasters in Gangwon province, which is mainly devastated by flood disasters, and seeking to the coping strategy against vulnerability of disaster between elderly men and women. A total of 183 elderly people aged 60 and over who were directly or indirectly damaged by flood disasters of 2006 in Pyung-chang and In-je in Gangwon province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disaster experiences between elderly men and women, howeve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perception of disaster among them. Although elderly women a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 possibility of secondary flood disasters than elderly men, elderly women are less knowledgeable than elderly men in disaster attacks and they have appeared to have low coping skills. This study showed that elderly women were more likely to live alone than elderly men and they have low income comparing to the elderly men. In conclusion, elderly women should be considered as a most vulnerable group to the disaster and gender-based approach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in disaster prevention.

**Key words** : Disaster perception, Flood disaster experience, Elderly men and women, Gangwon province

### 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해지역인 강원도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해경험과 재해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본 후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의 재해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6년 집중호우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의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183명을 대상으로 수해 경험과 재해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수해경험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재해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재해재발인식수준이 높았지만 실제 재해발생에 대한 지식이나 대응능력은 남성노인보다 낮았다. 또한 학력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무배우자의 혼자 사는 여성노인이 많이 이들을 재난취약집단으로 간주하고 성별을 고려하는 적합한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재해인식, 수해경험, 남녀노인, 강원도

### 1. 서 론

재난(disaster)으로 촉발되는 위험(risk)은 언젠가는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불확실한 사건의 발현 또는 과정으로 사람들의 복지를 위협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의식 조사, 2005). 통계청에서 4년마다 발표하는 사회통계조사에 2001년과는 달리 2005년에 안전부문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빈번한 자연재해는 태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 즉, 풍수해(風水害)이다. 소방방재청(2006)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태풍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규모는 전체 재해의 90%를 상회하며, 매년 평균 사망자 수는 82명이고 피해액은 1조원이 넘는다. 재해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2006년 여름 집중호우로 강원도에서 44명의 사망 및 실종자와 6,37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은 31.8%로

\*정회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E-mail: sdchung@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가장 높게 나타났다(강원도 내부자료 재집계 결과, 2006). 같은 해 경상북도에서도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사망자의 55%를 차지하였다(경상북도 내부자료 재집계 결과, 2006). 미국의 경우 태풍 카트리나로 인한 인명피해자의 70%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보고되었다(Phillips, 2006).

노인과 재난에 관한 연구는 서구의 경우 주로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사이에 시작되었다(Bowie, 2003). 재해약자로 불리는 노인은 대피경고이후에도 집을 잘 떠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Friedsam, 1960), 재해로 인한 상실로 인해 심리정서적 외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lin & Klenow, 1983). 특히 여성인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유병률이 더 높다고 하였다(Antai-Otong, 2007). 또한 노인은 재해상황에서 경고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복구 과정에서 변화된 생활 패턴에 적응하는 데 더 어려워하며(Friedsam, 1960), 복구속도가 젊은 사람에 비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Huerta & Horton, 1978). 최남희 등(2007)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재해로 인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음을 보고하면서 노인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노인의 성별에 따른 재해인식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중 Mesch(2000)는 성별에 따라 재해인식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Mesch의 연구는 자연재해가 아닌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성노인은 재해로 인해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연구(Melick & Logue, 1985)가 있지만, 이 역시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성노인과 비교가 어려우며, 정신건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재해인 수해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해 남녀성 노인을 함께 비교하여 재해대책에 대한 함의점을 찾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해와 관련된 연구는 서비스 전달이나 사후 대비 시스템 정비, 재난예방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 서비스 기관 등의 행정체계 등에 집중되어 왔으나(김구, 2003; 이창원, 강제상, 이원희, 2003; 최진호, 김진욱, 2006; 한기현 2004), 재해를 경험하는 개인이나 취약집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재해약자인 노인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으며, 여성노인 등을 중심으로 성별특성에 따라 접근한 연구도 거의 없다. 따라서 재해약자로 분류되는 노인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전체 노인의 약 2/3정도가 여성노인이며(통계청, 2005), 남성노인에 비해 무배우자 비율과 독거노인 비율이 높고, 건강과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여성노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재해와 같은 예측불허의 사건에서 개인이 위험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재난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식을 개발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 재해피해지역인 강원도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수해경험과 재해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성별에 따른 재해취약성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6년 호우피해가 집중되었던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에 거주하며 수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60세 이상 노인들이다. 각 군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도움으로 수해가 있었던 조사지역을 인제군에서 가리산리, 덕산리, 덕적리, 하추리, 한계 2리, 한계 3리 등 6곳, 평창군에서 상월오개 1리, 상월오개 2리, 속사 1리, 속사 2리 등 4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마을에서는 이장들의 도움으로 노인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과 보조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조사원들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대학원생들이고, 보조원들은 학부 재학생들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였으며,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구두 동의를 얻었다. 노인들의 경우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원들과 보조원들이 질문을 읽어주고 답변을 들은 뒤 응답에 표기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었고, 총 18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설문조사 도구

설문조사는 크게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해경험 및 재해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일반적 특성, 건강 및 경제적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직업유무, 결혼상태, 독거여부 등이 포함되었으며, 건강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평가, 청력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척도가 사용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평가'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나쁘다, 비교적 나쁘다, 비교적 좋다, 좋다 등에 1점에서 4점으로 응답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 스스로 지각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청력상태'는 잘 안들린다에서 잘 들린다는 1-3점으로 평가하였다. ADL척도는 6문항(웃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과 IADL척도는 7문항(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 물건사기, 금전관리, 전화사용, 약 챙겨먹기)을 사용하여 '혼자 불가능', '도움으로 가능', '혼자가 가능' 등에 1-3점을 주고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된 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특성은 주관적 경제상태평가와 수입정도가 사용되었다. '주관적 경제상태평가'는 주관적 건강상태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으며, 수입정도는 가족의 월평균소득을 6등급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수해경험 및 재해인식에 대한 설문문항은 중앙재해대책본부(2003)와 소방방재청(2005)이 실시한 조사 항목을 참조해 개발하였다. 수해경험으로 자신과 가까운 지인의 수해경험유무, 피해의 종류, 가옥파괴 및 복구정도, 총 수해경험횟수, 수해발생후 이사횟수 등을 포함하였다. 수해에 대한 대응태도로 수해 발생 사전 인지여부, 수해발생인지경로, 경고방송 청취

여부, 경고방송후 대응태도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노인의 재해인식은 거주지역의 재해안전도 인식, 거주지역의 재해발생 지식정도, 수해발생시 자신의 대응능력, 수해재발 가능성 인식, 대피소 보호기능 인식 등 5항목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1에서 5점으로 측정하였다.

### 2.3 통계 처리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 프로그램(version 1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수해경험과 재해인식 비교는 t-test와  $\chi^2$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1.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으로 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성노인이 71.66세, 여자노인이 71.49세로 성별 차이가 없었다. 거주기간은 남녀 노인 모두 평균 35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력과 직업, 결혼상태, 그리고 독거여부에서는 성별간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chi^2=29.130$ ,  $p<.001$ ), 직업역시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이 현재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chi^2=10.106$ ,  $p<.01$ ). 남성노인의 76.3%가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조사대상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결혼상태에서도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배우자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았으며( $\chi^2=20.449$ ,  $p<.001$ ), 독거여부 역시 여성노인의

독거비율이 남성노인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5.528$ ,  $p<.05$ ). 조사대상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우리나라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여성독거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보다 월등히 높아 수재와 같은 재해발생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 3.1.2 건강 및 경제상태

조사대상 노인의 건강 및 경제상태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건강상태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서만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높다( $t=2.211$ ,  $p<.05$ )고 평가한 것을 제외하면, 청력상태나 ADL, IADL 등에서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조사대상노인들은 스스로 평가한 청력이나 신체활동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상태의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나 월평균소득에서 성별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응답노인의 경제상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2 남녀노인의 수해경험과 대응태도

#### 3.2.1 남녀노인의 수해경험

조사대상노인의 수해경험을 <표 3>에서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78.9%가 여성노인은 85.0%가 직접수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이나 지인의 수해경험도 남성노인 72.4%, 여성노인 7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해경험의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3.2.2 수해경험 남녀노인의 피해경험 및 대응태도 차이

2006년에 수해를 직접 경험한 노인들 151명을 대상으로 수해 피해경험과 대응태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평균

표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항목	세부항목	빈도(%)		$\chi^2/t$
		남성노인(N=76)	여성노인(N=107)	
연령	64세 이하	11(14.5)	17(15.9)	1.217
	65세-69세	21(27.6)	34(31.8)	
	70세-74세	20(26.3)	21(19.6)	
	75세 이상	24(31.6)	35(32.7)	
	평균(SD)	71.66(7.07)	71.49(7.60)	.157
학력	무학	17(22.7)	57(53.8)	29.130***
	초등학교 졸업	34(45.3)	42(39.6)	
	중학교 졸업	10(13.3)	5(4.7)	
	고등학교 졸업	9(12.0)	2(1.9)	
	대학교 졸업 이상	5(6.7)	0(0.0)	
종교	없음	38(50.0)	42(39.3)	2.086
	있음	38(50.0)	65(60.7)	
직업	현재 없음	18(23.7)	50(46.7)	10.106**
	현재 있음	58(76.3)	57(53.3)	
결혼상태	기혼(유배우자)	68(89.5)	63(58.9)	20.449***
	사별(무배우자)	8(10.5)	44(41.4)	
독거 여부 (1인 가구)	예	5(6.6)	20(18.7)	5.528*
	아니오	71(93.4)	87(81.3)	
거주기간(년) 평균(SD)		38.18(23.31)	39.19(21.81)	-.295

\* $p<.05$ , \*\* $p<.01$ , \*\*\* $p<.001$

표 2. 조사대상 노인의 건강 및 경제상태

구분		평균 (SD)		t
		남성노인	여성노인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2.55(1.00)	2.22(.98)	2.211*
	정력상태	2.51(.81)	2.49(.78)	.229
	ADL	2.96(.09)	2.91(.29)	1.777
	IADL	2.91(.22)	2.82(.42)	1.807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25(.82)	2.22(.77)	.278
	월평균소득	빈도(%)	빈도(%)	$\chi^2$
	30만원 미만	26(37.1)	45(46.4)	1.768
	30-50만원 미만	17(24.3)	21(21.6)	
	50-80만원 미만	10(14.3)	12(12.4)	
	80-100만원 미만	5(7.1)	5(5.2)	
	100-150만원 미만	4(5.7)	6(6.2)	
150만원 이상	8(11.4)	8(8.2)		

\*p<.05, \*\*p<.01, \*\*\*p<.001

표 3. 조사대상자의 수해경험

구분		빈도(%)		$\chi^2$
		남성노인	여성노인	
자신의 수해 경험	있음	60(78.9)	91(85.0)	1.146
	없음	16(21.1)	16(15.0)	
가족 및 지인의 수해경험	있음	55(72.4)	77(73.3)	.885
	없음	21(27.6)	28(26.7)	

\*p<.05, \*\*p<.01, \*\*\*p<.001

가옥파괴율은 38.48% 이었으며, 반파 12.9%, 완파 20.9%였다. 평균 가옥복구율은 51.82%였다. 가옥파괴와 복구비율에서 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006년 수해시 파괴된 가옥이 한 해가 지난 시점에서도 50% 정도밖에 복구되지 못하였다

면 노인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총 수해경험은 남성노인이 .47건, 여성노인이 2.62건, 수해경험 전체노인 1.74건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수해발생으로 인해 이사를 간 횟수에서 남성노인은 .10건, 여성노인은 .28건에 불과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입증해주었다(Friedsam, 1960). 피해사례로는 전답, 가옥,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피해가 대부분으로 남성노인의 85.0%, 여성노인의 89.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해경험노인의 수해발생시 대응과정과 태도를 살펴보면, 수해발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수해경험 전체노인의 78.6%로 대다수였으며, 직전에 알게 된 경우도 20.8%였다. 이 경우 성별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수해발생

표 4. 수해경험 남녀노인의 피해경험 및 대응태도 차이

구분		빈도(%)		$\chi^2$
		남성노인(N=60)	여성노인(N=91)	
가옥파괴정도 % (평균, SD)		34.46(40.45)	42.11(41.49)	-1.076
가옥복구정도 % (평균, SD)		42.61(47.11)	58.24(46.18)	-1.789
현재까지 수행경험 횟수 (평균, SD)		.47(1.38)	2.62(14.67)	-1.385
수해발생후 이사 횟수 (평균, SD)		.10(.30)	.28(1.05)	-1.472
피해사례	재산피해	51(85.0)	81(89.0)	1.518
	인명피해	0(0.0)	1(1.1)	
	재산+인명피해	9(15.0)	9(9.9)	
수해발생 사전 인지	몰랐다	48(80.0)	70(76.9)	.700
	직전에 알았다	12(20.0)	20(22.0)	
	1시간 전에 알았다	0(0.0)	1(1.1)	
수해발생 인지 경로	자연징후를 보고	48(80.0)	80(88.9)	2.604
	친구나 가족의 전화	5(8.3)	3(3.3)	
	기타	7(11.7)	7(7.8)	
경고방송 청취여부	예	3(5.1)	1(1.1)	2.154
	아니오	56(94.9)	89(98.9)	
경고방송 후 대응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4(7.3)	14(18.7)	3.976
	위험 점검 및 보호활동	9(16.4)	14(18.7)	
	대피준비	10(18.2)	12(16.0)	
	위험지역에서 대피	32(58.2)	35(46.7)	
	평균 (SD)	5(1.6)	4.47(1.91)	

\*p<.05, \*\*p<.01, \*\*\*p<.001

표 5. 조사대상 노인의 재해 인식 수준

구 분	평균 (SD)		t
	남성노인(N=76)	여성노인(N=107)	
거주지역의 재해안전도 인식	3.04(1.27)	3.36(1.27)	-1.609
거주지역의 재해발생 지식정도	2.62(1.16)	2.03(.97)	3.615***
수해발생시 자신의 대응능력	2.86(1.33)	2.08(1.11)	4.156***
수해재발 가능성 인식	3.44(1.11)	3.81(.92)	-2.395*
대피소 보호기능 인식	3.25(1.29)	3.06(1.30)	.94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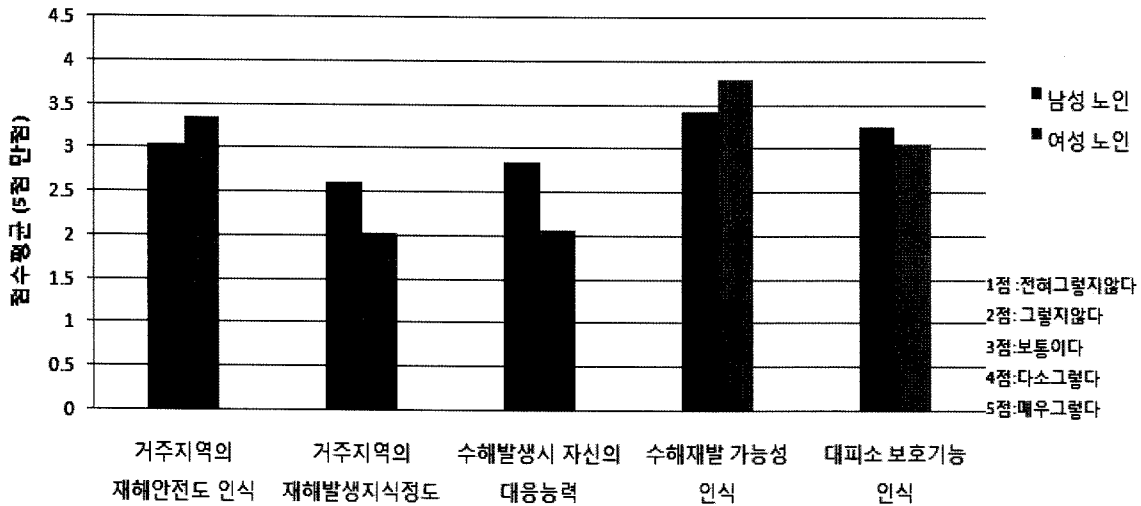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 노인의 재해 인식 수준

을 인지하게 된 것도 ‘자연징후로 알게 되었다’가 수해경험 전체노인의 84.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약 10%정도는 친구나 친척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역시 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수해발생시 경고방송 역시 듣지 못한 경우가 수해경험 전체노인의 96.1%로 대다수였다. 이는 수해경험 노인들 대부분이 경고방송을 듣지 못한 채 수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제대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수해재난을 예고하는 경고방송을 듣는다면 대응태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수해경험 전체노인의 13.8%, ‘위험이 될 만한 징후점검’ 5.4%, ‘위험에 따른 재산보호와 개인안전보호 행동’ 12.3%, ‘대피준비’ 16.9%, ‘위험지역 벗어난다’가 51.5%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수해경험 노인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전히 10%가 넘는 노인들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대응과정과 태도 모두 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3.2.3 조사대상 남녀노인의 재해인식 차이

조사대상 전체노인의 재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주지역의 재해발생 지식정도, 수해발생시 자신의 대응능력, 수해재발 가능성 인식 등에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재해발생 지식정도의 경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3.615, p<.001$ ), 수해발생시 자신의 대응능력 역

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156, p<.001$ ). 그러나, 수해재발 가능성 인식은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t=-2.395, p<.05$ )(<그림 1>참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여성노인들은 수해재발 가능성은 인식하지만 실제로 재해발생에 대한 지식이나 대응능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거주지역의 재해안전도 인식이나 대피소 보호기능 인식은 성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6년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인제군과 평창군에 거주하는 수해경험 남녀노인 183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수해경험과 재해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노인의 성별에 따른 수해경험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은 151명의 경우, 전체의 수해경험은 재산피해가 가장 컸고(87.5%), 평균 가옥파괴율은 38.48%, 반파 12.9%, 완파 20.9%로 나타났다. 평균 가옥복구율은 51.82%로 완전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의 주거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총 수해경험 건수는 남성노인 .47건, 여성노인 2.62건, 전체노인 1.74건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성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수해발생으로 인해 이사 간 횟수는 남성노인 .10건, 여성노인 .28건, 전체노인 .20건에 불과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입증해 주었다. 수해경험 노인들이 피해지역에 그대로 살게 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결과이다.
- (3) 수해경험 전체노인의 78.6%는 사전에 수해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96.1%는 수해발생시 경고방송을 듣지 못하였다. 이는 수해경험 노인들 대부분이, 즉 성별과 관계없이 경고방송을 듣지 못한 채 수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제대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경고방송이 어렵거나 노인들이 주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이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주의를 이끌고,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경고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4) 노인의 성별에 따른 재해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들은 수해재발 가능성은 남성노인에 비해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 재해발생에 대한 지식정도나 대응능력은 남성노인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노인들은 혼자 사는 비율이 남성노인보다 월등히 높아 수재와 같은 재해발생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홀로 사는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재해시 이웃 주민들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이웃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노인의 성별 수해경험은 차이가 없었으나 재해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을 고려한 재난대응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에 비해 학력이 낮고, 무직자의 비율이 높으며,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재난 취약집단(군)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원도청 (2006). 2006년 7월 집중호우 인명피해. 피해현황내부자료, 강원도청 건설방재국 긴급대책계.  
 경상북도청 (2006). 2003-2006 태풍 인명피해. 피해현황내부자료,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치수방재과.

김구 (2003). 재해활동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재해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 -광산구 지역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조선대학교지역사회발전연구원, 제8권, 제1호, pp. 39-60.  
 소방방재청 (2005). **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의식조사**. 국립방재연구소.  
 소방방재청 (2005). **방재 및 피난관리행정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국립방재연구소.  
 소방방재청 (2006). **2004 재해연보**. 국립방재연구소.  
 이창원, 강제상, 이원희 (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 조직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세미나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pp. 1-39.  
 중앙재해대책본부 (2003). **홍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행정자치부.  
 최남희, 변주훈, 한동일, 임숙빈 (2007). 자연재난 집중호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신간호학회지**, 대한간호학회정신간호학회, 제16권, 제7호, pp. 139-149.  
 최진호, 김진옥 (2006). 우리나라 재해 임시주거의 거주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제31권, 제3호, pp. 175-189.  
 통계청 (2001). **2001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2005). **2005 사회통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귀현 (2004). 사전방재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자연재해 대책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제5권, 제2호, pp. 575-598.  
 Antai-Otong D. (2007). The art of prescribing pharmacologic manage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Vol. 43, No. 1, pp. 55-59.  
 Bolin, R. & Klenow, O. J. (1983). Older people in disaster: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victim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26, pp. 29-43.  
 Bowie S. L. (2003). Post-Disaster Crisis Intervention with Older Adults in Public Housing Communities. *Crisis Intervention and Time-Limited Treatment*, Vol. 6, No. 3, September-December, pp. 171-184.  
 Friedsam, H. J. (1960). Older persons as disaster casualties. *Journal of Health and Human Behaviour*, Vol. 1, pp. 269-273.  
 Heurta, F. & Horton, R. (1978). Coping behavior of elderly flood victims, *The Gerontologist*, Vol. 18, pp. 541-546.  
 Melick, M. & Logue, J. (1985). The effect of disaster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21, No. 1, pp. 227-238.  
 Mesch. G. S. (2000). Perception of risk, lifestyle activities and fear of crime. *Deviant Behaviou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vol. 21, pp. 47-62.  
 Phillips, B. D. (2006). Evacuation: why don't people leave? *Working Conference Report on Emergency Management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Http://www.add-em-conf.com](http://www.add-em-conf.com).

© 논문접수일 : 2007년 10월 02일  
 © 심사회의일 : 2007년 10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0월 27일